

## 성도의 교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교회의 양육과 목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목사 혹은 안내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회 소식

1. 예배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을 활용하세요.  
\*말씀묵상, 성경암송, 성경일독, 순모임 자료
3. 식사 준비 및 정리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4. 풍성한 추석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 추석가정예배순서지는 필요한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 여름성경학교(9.21.)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 \* 기도 제목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 함께하는 주일학교와 남산교회를 위해
-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황정필 형제를 위해
- 이강진 집사님 부모님, 이미정 성도님 아버님, 정주리 성도님 어머니, 최수연 사모님, 최재욱 성도님 어머니, 하유미 성도님 어머니 건강, 장윤경 사모님 아버님을 위해
- 김윤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섬기는 분들 ■				
		이번 주(9/8)	다음 주(9/15)	9/22
기 도	주일오전예배	박철호 서리집사	이승재 전도사	이윤경 성도
	주일오후예배	이강진 서리집사	이빛나 성도	이승재 전도사
성경 봉독		이윤경 성도	최수연 성도	편재천 성도
식사 준비		이윤경 순	오숙현 순	이강진 순
정리		오숙현 순	이강진 순	이윤경 순

\* 주보와 유인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헌금과 후원을 위한 계좌 - 국민은행 474501-01-143450 (예금주: 열매맺는교회)



제6권 36호 2019.9.8.

바 른 신 학  
바 른 교 회  
바 른 생 활

##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김윤기 목사

찬 양	.....	다	같	이
♣ 예 배 부 름	.....	인	도	자
♣ 기 원	.....	인	도	자
♣ 송 영	찬송가 23장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 참 회 와 용 서	.....	다	같	이
회 중 찬 송	시편찬송 110장, 찬송가 95장	다	같	이
시 편 교 독	시편 125편	이	윤	경 성도
목 회 기 도	.....	인	도	자
설 교	이사야 66장 22-24절	김	윤	기 목사
[ 예배자들 ]				
찬 송 과 기 도	찬송가 550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	인	도	자
기 도	현상과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박	철	호 서리집사
♣ 찬 송	찬송가 379장	다	같	이
♣ 축 도	.....	설	교	자

♣ 표는 일어섭니다.

담임목사 김 윤 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4(개포로 506) 청우빌딩 601호 / 02-3412-1012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인도 : 김윤기 목사  
 찬 송: 다 같 이  
 기 도: 이강진 서리집사  
 주 제: 특강 종교개혁사 7장  
 합심기도: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인도 : 김윤기 목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36주일  
 찬 송: 다 같 이  
 본 문: 시 56:3-8  
 설 교: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 도 회: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 예배 및 기도회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00분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00분

**- 함께하는 주일학교 -**

영아유치부	주일 오전10시30분
-------	-------------

\* 남산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 성경 공부 -**

소그룹나눔	주일 오후1시00분
새 가 족	주일 오후1시00분

**□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36주일 - 십계명에 관하여**

**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100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답: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 설교 노트: 사 66:22-24, 예배자들**

**1.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는 심판으로 시작하였으나 소망으로 마칩니다. 이사야서의 끝인 소망의 절정에는 하나님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22절). 그러나 이사야서의 시작을 생각하면 이러한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결말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는 범죄한 나라를 고발하며 시작했습니다(사 1:4). 이와 같은 반전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뜻(7-12장)과 여호와와의 종의 구속 사역(49-55장)으로 실현됩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서의 결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할 것입니다(22절상).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 역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22절하).

**2.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23절). 때가 이르면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까지도 주께 나아와 경배할 것입니다(사 66:18,19; 계 15:4). 이들은 혈통은 다르지만 성령을 따라 난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릴 상속자입니다(롬 8:14-17; 엡 3:5,6).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미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로 모으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요 11:52).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요 4:24; 벰전 2:5).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예배한다는 의미는 특정한 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날이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23절).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육체가 참되신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하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본질은 형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사 66:1-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중심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늘과 땅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이미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고후 5:17; 요 3:5).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되는 유대 백성들과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백성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길 권면합니다(24절). 부끄러움을 벗어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막 9:47-49).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부름 받은 존재 목적을 잊지 말고 기쁨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